

## SADP and ATDP-O를 이용한 예비중등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김 남 진\*

대구대학교 특수과학교육사업단

신 화 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 《 요 약 》

---

본 연구는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예비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하고,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D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23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4명의 설문을 SPSS 22.0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중등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중등교사 전체 집단은 장애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전공별로는 특수교육전공과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학년, 학령기 통합경험 유무, 가족·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 현재 거주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전공과 현재의 거주형태가 예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장애인의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등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SADP and ATDP-O, 예비중등교사, 장애인에 대한 태도

---

\* 제 1저자 (njkim@daegu.ac.kr)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newmars@daegu.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합이란 자연적 환경에서 최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완전히 참여하고, 그 환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안정된 사회적 관계망의 부분이 되는 것(Haring, 1991)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단순히 같은 공간 내에서 함께 교육하고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 및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우(이한우, 이원령, 2004)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등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통합된 공동체로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여전히 비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녹연, 설진화, 2011; 이한우, 이원령, 2004).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와 단절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과 재활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김정남, 서미경, 2004; 정만복, 2010).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추상적 개념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로 존재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성별(김민정, 2012; 김보람 외, 2011; 박순길, 박정순, 2007; 송수영, 2000; 임태민, 1996)이나 연령(김민정, 2012; 김상학, 2004; 류수경, 1991; 송수영, 2001)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김기경, 김양지, 채정원, 2007; 오원석 외, 2009; 이송희, 2007; 최국환, 2011; 최성규 외, 2008)과 학력(김민정, 2012; 고은, 목홍숙, 2013), 그리고 지식의 차이(손상희, 2005; 한규석, 2005), 통합경험 유무(김은영, 2005; 오원석, 서영란, 2006; 이혜숙, 2004) 등과 같은 개인 간 학문적 특성의 이질성이 차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기에 상황적·인간적 접촉 경험(류원상, 2007; 백윤경, 2004; 송수지, 김정민, 2008; 오원석 외, 2009; 오원석, 2011; 오원석, 박비주, 2012)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남유조(2006)와 이유미(2006)는 자아존중감도 이와 같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인식과 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함

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최길순, 2012) 가변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별 혹은 연령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 교육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를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갖고 있는 가소성을 염두에 둘 때, 발달단계상 대학생 시기에 갖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당 시기는 성인 초기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인식은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박미희, 권희경, 2013)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 사회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기홍, 2006; 김예순 외, 2015; 류승아, 2009; 오광진, 2001; 이송희, 2007; 이한우, 이원령, 2004; 최길순, 2012; 최성규 외 2008). 선행연구들은(김예순 외 2015; 김진영, 남진열, 2005; 이송희, 2007; 최길순, 2012; 최성규 외 2008) 장애와의 접촉이 많은 학과가 접촉이 없는 학과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국환(2011)도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학, 재활학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 태도가 공학전공 대학생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다시 제시함으로써 전공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입증하였다.

발달단계에 있어 대학생 시기가 갖는 중요성과 함께 사범대학은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 및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키는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교사는 교육 실행의 핵심 주체이며, 문화적 매개자이자 조정자로서,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학생들에게 중추적 역할을 한다(이유진, 황향희, 윤남주, 2014). 따라서 졸업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후속 세대들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기초해 볼 때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목적 실현을 위해 대학생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내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전공별(오원석, 2011; 이승호, 2009; 최정희, 2008)로 비교한 논문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행된 많은 연구들은 연구자 개인별로 제작한 검사도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축적 정도에 비해 객관적 비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객관적인 준거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학문적으로는 진일보한 연구를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된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척도는 Siller, Chipman, Ferguson과 Vann(1967)이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를 변안, 수정·보완한 것(권말숙, 이정화, 2014; 박미희 외, 2013; 송수지 외, 2008)이었다. 이 밖에 Yuker, Block과 Cambell(1960)이 개발한 ATDP(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s), Antonak(1981, 1982)이 개발한 SADP(Scal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도 활용되어왔다(신은경 외, 2011 재인용). 그러나 이상의 검사도구들은 개발 시기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신은경 외, 2011)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상호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활용범위가 넓은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장애인 수용 태도 관련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예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예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문제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한 비교가능한 객관적 자료 확보라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예비교사의 장애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둘째, 예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예비중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D대학교의 교직소양과목으로 개설된 특수교육학개론 4개 강좌 223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과 교직이수를 위해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의 설문 19부를 제외한 204명 (91.5%)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단위: 명, %)

구분	유·초·중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외 사범대학	전체	
학년	2학년	52(83.9)	116(81.7)	168(82.4)
	3~4학년	10(16.1)	26(18.3)	36(17.6)
학령기 통합교육 경험	있음	41(66.1)	94(66.2)	135(66.2)
	없음	21(33.9)	48(33.8)	69(33.8)
가족, 친척 중 장애인 유무	있음	18(29.0)	27(19.0)	45(22.1)
	없음	44(71.0)	115(81.0)	159(77.9)
현재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생활	22(35.5)	56(39.4)	78(38.2)
	친구, 친척과 함께 생활 (기숙사 포함)	24(38.7)	49(34.5)	73(35.8)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	16(25.8)	37(26.1)	53(26.0)
전체	62(30.4)	142(69.6)	204(100)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전체 204명중 특수교육전공이 30.4%(62명), 특수교육전공 외 사범대학생 69.6%(142명)이며, 학년별로는 2학년이 82.4%(168명), 3~4학년이 17.6%(36명)였다. 특수교육전공의 경우 66.1%(41명)가 학령기에 통합경험이 있었으며, 특수교육전공 외 사범대학생의 경우 역시 비슷한 수준인 66.2%(94명)가 학령기에 통합경험이 있었다. 특수교육전공 학생의 29%(18명), 특수교육전공 외 사범대학생의 19%(27명)는 가족, 친척 중 장애인이 있었다. 거주형태로는 특수교육전공생의 경우 친구·친척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38.7%(24명),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35.5%(22명), 독립생활 25.8%(16명)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전공 외 사범대학생은 가족과 함께 생활이 39.4%(56명), 친구, 친척과 함께 생활 34.5%(49명), 독립생활이 26.1%(37명)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ntonak(1982)이 개발하고, 신은경 등(2011)이 국내에 맞춰 표준화한 SADP and ATDP-O 척도를 사용하였다. SADP and ATDP-O 척도는 Antonak(1982)이 SADP의 개발과정에서 ATDP 척도와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에서 추출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SADP에서 17개, ATDP에서 15개로 총 5개의 하위차원, 32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신은경 등(2011)은 위의 32개 문항 중, 의미가 중복되는 2개 문항을 제외한 30개 문항을 비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총 3개의 하위 차원과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SADP and ATDP-O 척도는 3개의 하위차원 ‘염세주의-고정관념(Pessimism-Stereotype)’, ‘낙관주의-인권(Optimism-Human Rights)’, ‘손상된 성격(Derogatory Personality Stereotype)’이다. ‘염세주의-고정관념’은 장애인의 인간적인 성숙과 도덕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와 장애인이 불평이 많고 과민하여 쉽사리 우울해질 것이라는 성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의미하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주의-인권’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손상된 성격’은 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통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표 II-2>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경우, Cronbach’s Alpha는 .871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II-3> 참조). 특히 하위차원 중 손상된 성격의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 계수는 최소한 0.7을 넘어야 한다는 일반적 주장에 견주어 볼 때 다소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으나, 0.6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존재함을(김남진, 김정은, 최희승, 2012; 김남진, 김용욱, 2009; Hair, Anderson, Tatham & Black, 2006; Nagpal, Kukar, Bhartia, 2010; 이기훈, 2014 재인용) 고려하여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의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과 분산이 큰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등도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표 II-2> SADP and ATDP-O의 구성

하위차원	문항
염세주의 고정관념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 같다.
	장애인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자주 투명스럽게 군다.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낙관주의 인권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손상된 성격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표 II-3> 하위 범주별 문항수 및 신뢰도

범주	문항수	Cronbach's Alpha
염세주의-고정관념	10	.850
낙관주의-인권	3	.800
손상된 성격	2	.615
전체	15	.871

설문의 배경변인은 선행연구(김예순 외, 2015; 송수지 외, 2008)를 참조하여 전공, 학년, 학령기 통합경험유무, 가족·친척 중 장애인유무, 현재 거주형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성별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종속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 3. 자료 처리

자료 분석을 위해 원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재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설문지에는 현재 소속(전공)을 파악하기 위해 특수교육계열, 비특수교육계열의 사범대학, 비사범계열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수합된 설문지에는 비사범계열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배경변인에서 비사범계열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교직소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의 특성상 3학년생과 4학년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응답자 수도 매우 적었다. 이에 개별 학년별로 결과를 처리할 경우 추리통계를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3학년과 4학년을 한 집단으로 분류, 결과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세주의-고정관념’과 ‘손상된 성격’영역의 경우, 선행연구(신은경 외, 2011)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변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최종 자료는 SPSS Window 22.0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문제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둘째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사범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하위요인별 설명력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 III.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범대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전체학생의 장애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 $M = 3.19$ ,  $SD = .39$ )이었다. 특수교육전공 학생( $M = 3.29$ ,  $SD = .36$ )이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생( $M = 3.06$ ,  $SD = .38$ )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표 III-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범대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구 분		N	M(SD)	t/F
전공	특수교육	62	3.29( .36)	3.80***
	특수교육 외 사범	142	3.06( .38)	
	전체	204	3.13( .39)	
학년	2학년	168	3.12( .37)	-.79
	3~4학년	36	3.19( .47)	
학령기 통합교육 경험	있음	135	3.13( .39)	-.288
	없음	69	3.15( .39)	
가족, 친척 중 장애인 유무	있음	45	3.22( .37)	1.70
	없음	159	3.11( .40)	
현재 거주형태	가족과 함께 생활	78	3.06( .41)	2.35
	친구, 친척과 함께 생활 (기숙사 포함)	73	3.17( .35)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	53	3.19( .39)	
전 체		204	3.13( .39)	

\*\*\* $p < .001$ 

학년별로는 3~4학년( $M = 3.19$ ,  $SD = .47$ )이 2학년( $M = 3.12$ ,  $SD = .37$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기에 통합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M = 3.15$ ,  $SD = .39$ )가 학령기에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M = 3.13$ ,  $SD = .39$ )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가족·친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M = 3.22$ ,  $SD = .37$ )가 없는 경우( $M = 3.11$ ,  $SD = .40$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 거주형태별로는 독립생활( $M = 3.19$ ,  $SD = .39$ )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은 친구·친척과 함께 생활( $M = 3.17$ ,  $SD = .35$ ), 가족과 함께 생활( $M = 3.06$ ,  $SD = .4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범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하위차원별로 살펴볼 때, ‘낙관주의-인권’영역( $M = 3.23$ ,  $SD = .49$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염세주의-고정관념’( $M = 3.16$ ,  $SD = .43$ ), ‘손상된 성격’( $M = 3.02$ ,  $SD = .62$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염세주의-고정관념’영역( $p < .001$ )과 ‘낙관주의-인권’영역(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15문항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염세주의-고정관념’영역의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M = 3.48, SD = .59)였고, 가장 평균 점수가 낮은 문항은 같은 영역의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M = 2.72, SD = .69)였다.

<표 III-2> 사범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문항별 기술통계 결과 (n=204)

범 주	문 항	전체	전 공		t
			특수교육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	
염세주의- 고정관념 (역채점 문항)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 같다.	2.72 (.69)	2.90 (.67)	2.64 (.68)	2.52*
	장애인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3.23 (.63)	3.48 (.50)	3.12 (.65)	4.31***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격행 동에 몰두한다.	3.35 (.61)	3.42 (.64)	3.32 (.60)	.99
	장애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 가능하다.	3.28 (.72)	3.42 (.71)	3.23 (.71)	1.78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	3.03 (.67)	3.27 (.57)	2.93 (.69)	3.68***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3.20 (.73)	3.47 (.59)	3.08 (.76)	3.58***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3.15 (.71)	3.40 (.63)	3.04 (.71)	3.42**
	장애인은 자주 투명스럽게 군다.	3.18 (.64)	3.42 (.58)	3.08 (.64)	3.58***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3.03 (.68)	3.18 (.64)	2.96 (.68)	2.07*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48 (.59)	3.76 (.43)	3.35 (.62)	5.36***
범주 전체	3.16 (.43)	3.37 (.37)	3.07 (.43)	4.57***	
낙관주의 -인권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3.14 (.57)	3.27 (.54)	3.08 (.55)	2.26*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	3.22 (.61)	3.42 (.66)	3.13 (.57)	2.93**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33 (.58)	3.50 (.56)	3.25 (.57)	2.82**
	범주 전체	3.23 (.49)	3.39 (.50)	3.15 (.47)	-3.19**
손상된 성격 (역채점 문항)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 깝게 생각한다.	3.15 (.69)	3.26 (.65)	3.10 (.70)	1.56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2.90 (.76)	3.00 (.78)	2.85 (.75)	1.27
	범주 전체	3.02 (.62)	3.12 (.59)	2.97 (.62)	1.63
전 체		3.13 (.39)	3.29 (.36)	3.06 (.38)	3.80***

\*  $p < .05$ , \*\*  $p < .01$ , \*\*\*  $p < .001$

이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특수교육전공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염세주의-고정관념’영역의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M = 3.76, SD = .43)였으며, 가장 평균 점수가 낮은 문항은 동일한 영역의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M = 2.90, SD = .67)였다. 특수교육 외 전공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염세주의-고정관념’의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M = 3.35, SD = .62)이며, 가장 평균 점수가 낮은 문항은 같은 영역의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M = 2.64, SD = .68)였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염세주의-고정관념’영역에서 “일반 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M = 3.48, SD = .59)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M = 3.23, SD = .63),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M = 3.20, SD = .73,  $p < .001$ ), “장애인은 자주 통명스럽게 군다.”(M = 3.18, SD = .64,  $p < .001$ ),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M = 3.15, SD = .71,  $p < .01$ ),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 된다.”(M = 3.03, SD = .67),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M = 3.03, SD = .68,  $p < .05$ ),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M = 2.72, SD = .69,  $p <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M = .35, SD = .61), “장애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M = 3.28, SD = .72)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낙관주의-인권’영역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M = 3.33, SD = .58,  $p < .01$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어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구직기회가 주어져야한다.”(M = 2.22, SD = .61,  $p < .01$ ),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M = 3.14, SD = .57,  $p < .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손상된 성격’영역에서는 전공 구분 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수교육전공 학생(M = 3.12, SD = .59)이 특수교육 외 사범대 학생(M = 3.06, SD = .38)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사범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

5개의 독립변인(전공, 학년, 학령기 통합교육 경험, 가족 혹은 친척 중 장애인 유무, 현재 거주 형태)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입력방식에 의해 종속변인(장애인에 대한 태도)을 예측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Ⅲ-3>과 같다.

<표 III-3> 사범대생들의 배경변인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관련 중다회귀분석 결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beta$	t	R	R <sup>2</sup>	F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전 공	-.220	.058	-.257	-3.788***	.323	.105	4.623**
	학 년	.064	.071	.062	.903			
	학령기 통합교육 경험	.017	.057	.021	.302			
	가족, 친척 중 장애인 유무	-.089	.065	-.094	-1.367			
	현재 거주 형태	.071	.034	.142	2.113*			
	상수	3.375	.228		14.784			

\*  $p < .05$ , \*\*  $p < .01$ , \*\*\*  $p < .001$

결과에 의하면 다섯 개의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을 예측한 결과  $R^2 = .105$ 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인의 평균을 사용하여 예측할 경우에 기대되는 예측량보다 .105만큼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을 10.5% 설명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R^2 = .105$ 의  $p = .001$ 로써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과 현재 거주 형태 등의 두 독립변수만이 각각 0.001과 0.05보다 작아 ‘장애인에 대한 태도’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두 독립변인의 상대적 예측력은 전공( $\beta = -.25$ ), 현재 거주 형태( $\beta = .14$ )의 순이었다. 위의 산출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섯 개의 독립변인으로부터 설명된 종속변인의 총설명량은 10.5%이다. 그러나 각 독립변인의 고유 설명량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beta$ )로부터 합산된 총 설명량은 약 9.7% (.2572 + .0622 + .0212 + .0942 + .1422 = 0.097)였다. 따라서 0.8% (10.5% - 9.7%)가 공통 설명량으로 처리되었음이 파악되었다.

기울기를 통해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독립변인의 효과가 통제되었을 때 전공에서의 점수가 1점 상승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22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독립변인의 효과가 통제되었을 때 가족, 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가 1점 상승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089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원리에 의해 현재 거주 형태는 .071점, 학년은 .064점 그리고 학령기 통합교육 경험은 .017점만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출되었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4명의 사범대학생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 사범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 $M = 3.13$ ,  $SD = .3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낙관주의-인권’영역( $M = 3.23$ ,  $SD = .49$ )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염세주의-고정관념’( $M = 3.16$ ,  $SD = .43$ ), ‘손상된 인격’( $M = 3.02$ ,  $SD = .62$ )순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별로 특수교육전공 학생( $M = 3.29$ ,  $SD = .36$ )이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생( $M = 3.06$ ,  $SD = .38$ )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그 외 학년, 학령기 통합경험 유무, 가족·친척 중 장애인 유무, 현재 거주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관련 학과가 타 전공의 학생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김기경 외, 2007; 오원석 외, 2009; 이송희, 2007; 최국환, 2011; 최성규 외, 2008)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나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역할 기대도 크고 태도 역시 호의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볼 때(강수균, 조홍중, 2003; 김예순 외 2015; 김진영 외, 2005; 오원석, 2009; 오원석, 2011; 이송희, 2007; 이영희, 2009; 최국환, 2011; 최길순, 2012; 최성규 외 2008), 장애인과 자주 접촉을 하는 특수교육전공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학령기의 통합교육 경험, 가족·친척 중 장애인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통합경험과 가족·친척 중 장애인 유무에 따라 영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은영, 2005; 송수지 외, 2008; 오원석, 서영란 2006; 오원석 외 2009; 이미자, 2005; 이혜숙, 2004; 홍지천, 2002)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공별 하위 범주의 차이를 볼 때, 특수교육전공과 특수교육전공 외 전공 간에는 염세주의-고정관념( $t = 4.57$ ,  $p < .001$ )과 낙관주의-인권( $t = -3.19$ ,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특수교육전공 학생의 태도가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생의 태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전공학생과 특수교육 외 사범대학생 모두 ‘낙관주의-인권’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손상된 성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의 성격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이 실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신은경 등(2011)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문항별로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염세주의-고정관념’영역의 “일반학급의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같은 영역에서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특수교육 M = 2.90, SD = .67 / 특수교육 외 M = 2.64, SD = .68)가 가장 낮은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은경 등(2011)의 연구에서 ‘낙관주의-인권’영역의 “장애인들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손상된 성격’ 영역의 “대부분의 장애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건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예순 외, 2015)는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점수를 통한 객관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하위 문항을 순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염세주의-고정관념’영역의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다”에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일 영역의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성적행동에 몰두한다”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둘째, 사범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과 현재 거주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주형태(김예순 외, 2015)와 전공(김진영 외, 2005; 이송희, 2007; 최성규 외 2008)이 장애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가족·친척 중 장애인의 유무, 통합경험의 유무변인은 선행연구(김은영, 2005; 송수지 외, 2008; 오원석 외, 2006; 오원석 외 2009; 이미자, 2005; 이혜숙, 2004; 홍지천, 2002)와는 달리 장애인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공의 경우, 장애인의 이해 관련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유수옥, 이중혜, 2013), 장애이해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밝힌 선행연구(양명희, 임은미, 2004) 등을 살펴볼 때, 학령기의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의 교육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 관련 수업 이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김자경, 2013; 양명희 외, 2004; 유수옥 외, 2013; 허광희, 2012), 긍정적인 교사의 태도는 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활동 안에서 의사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친숙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회를 얻도록 한다(김성애, 2005).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장애관련 교과목(장애인복지론,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이해교육 등)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

예비교사에 대한 장애인의 태도 비교를 목적으로 진행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를 영역별로 나누지 않고, 단순히 장애인으로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식 또는 태도가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선행연구(김미옥, 2002;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 2009; 정혜영, 서보순, 2012)를 볼 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로 태도를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수교육전공 대학생과 비전공 대학생들 간에 장애인에 대한 유의미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집단을 배경변인별로 구분할 시, 정규분포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추리통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의 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척 중 장애인 유무, 학령기 통합경험의 유무만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과의 단순 접촉의 경험보다는 접촉에 대한 인상과 사회적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류승아, 2009; Maras & Brown, 2000; 최국환, 2011 재인용)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접촉 경험과 태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접촉 경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수균, 조홍중 (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고은, 목홍숙 (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27-151.
- 권말숙, 이정화 (2014).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6), 3367-3674.
- 김기경, 김양지, 채정원 (2007). 보건의료학생의 신체적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의간호학회지**, 21(1), 57-66.
- 김기홍 (2006). 장애아(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에 관한연구: 부산·경남지역 소재 대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3(1), 27-48.
- 김남진, 김정은, 최희승 (2012). **장애아 진단 및 평가**. 경기: 양서원.
- 김남진, 김용욱 (2009). **(특수)교육연구방법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김민정 (20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김호영, 손유라, 오진주, 윤슬기, 이효정, 장문영 (201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9(1), 1-9.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7, 169-206.
- 김성애 (2005). 현상학적 입장에서 본 특수교육교사의 (중증) 발달장애아 진단 및 교육적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147-176.
- 김예순, 백형원, 남영희, 김선용, 김명 (2015). 보건학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185-201.
- 김은영 (2005). 통합경험 유무에 따른 비장애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경 (2013). 예비일반교사의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 효능감 변화. **학습장애연구**, 10(2), 93-110.
- 김정남, 서미경 (2004).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589-607.
- 김진영, 남진열 (2005).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39-58.
- 남유조 (2006). 자아존중감, 교우선택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경 (1991). 장애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25.
- 류원상 (2007).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희, 권희경 (2013). 대학생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생애학회지**, 3(3), 51-71.
- 박순길, 박정순 (2007). 일반 중학교 지체부자유학생에 대한 또래학생들의 장애 태도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1), 113-130.
- 백운경 (2004). 장애이해프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개선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 (2009). 장애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장애 인식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11(1), 83-104.
- 손상희 (2005). 통합학급 아동의 장애급우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특성. **특수아동교육연구**, 7(4), 147-170.
- 송수영 (2000).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 신은경, 이한나 (2011).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SADP and ATDP-O)의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3(1), 267-289.

- 양명희, 임은미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03-223.
- 오광진 (2001). 대학생의 신체장애인 통합체육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0(1), 811-820.
- 오복연, 설진화 (2011). 기업자원봉사자의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1(3), 153-184.
- 오원석 (2011).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식, 통합교육 태도 및 우려간의 관계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2), 115-142.
- 오원석, 서영란 (2006). 일반학급에 통합된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들의 태도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8(2), 79-97.
- 오원석, 최성규, 송혜경, 송호준 (2009).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2(1), 125-148.
- 오원석, 박비주 (2012). 예비교사의 직·간접 장애 경험에 따른 장애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와의 관계 모형 개발. **특수교육연구**, 19(2), 1-27.
- 이기훈 (2014). **SPSS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경기: 자유아카데미.
- 이송희 (2007).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 정신보건 자원봉사 경험, 정신보건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정신보건 실습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호 (2009).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간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9). 초등교사와 예비 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 (2006). 장애관련학과와 장애 비관련학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장애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비교.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 황향희, 윤남주 (2014). 예비중등교사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인식, 다문화태도.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한우, 이원령 (2004).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1), 471-492.
- 이혜숙 (2004).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태민 (1996). 농촌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만복 (2010). SDA 삼육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영, 서보순 (2012). 예비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117-145.
- 최국환 (2011). 특수교육, 재활학, 공학전공 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직업재활연구**, 16(1), 265-280

- 최길순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을 중심으로. *보건기초의학회지*, 5(1), 83-93.
- 최성규, 오원석, 송혜경, 주미영 (2008). 지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정신지체연구*, 10(1), 185-205.
- 최정희 (2008). 자원봉사와 대중매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규석 (2005). 장애인에 대한 체육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광희 (2012). 장애인에 대한 예비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tonak, R. F. (1981). Prediction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 multivariate analysi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4, 119-123.
- Antonak, R. F. (198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3(2), 22-29.
- Haring, T. G.(1991). Social relationships. In L. H. Meyer, C. A. Peck, & L. Brown(Eds.), *Critical issues in the live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195-217. Bltimore: Paul H. Brookes.
- Maras, P., & Brown, R. (2000). Effects of different forms of school contact on childrens' attitudes toward disabled and non-disabled peer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337-351.
- Siller, Chipman, Ferguson and Vann(1967). *Attitudes of the non-disabled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Studies in reactions to disability*. N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Yuker, Block, Cambell(1960). *A sca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Human Resources Study No. 5. Alberton*. NY: Human Resources Center.
- Yuker, H. E.(1994). Variable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Conclusions form the data. In D. S. Dunn (Ed.). Psychosocial perspectives on disability(Special issu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5). 3-22.

## The Study on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by Using SADP and ATDP-O

**Kim, Namjin**

Daegu University

**Shin, Hwa-Sung**

Daegu University Graduated School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ttitude scores towards disabled person by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examine influence factors of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targeting preservice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taking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A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SADP and ATDP-O(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 Scale targeting 223 pre-teachers of 4 lectures of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and lastly, a survey of 204 people was analyzed through SPSS 22.0. To compare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to examine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by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influence factors of pre-teachers'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whole group of pre-teachers showed relatively positive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and on examining by majors,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major in special education and teachers college except for special education( $p < .001$ ). In addit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grade, integrative experience in school age, being disabled person or not of family and relative, and present residential types. Second, influence factors of pre-teachers'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such as major and present residential types have an impact. With reference to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this study compared and discussed with an advanced research, and implication of the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Preservice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 SADP and ATDP-O

---

논문 접수: 2016. 06. 07 심사 시작: 2016. 06. 10 게재 확정: 2016. 07. 15